

외국 유망수종 육성시험

(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 2003~계속)

최충호

요 약

1980년 식재된 독일가문비나무 2산지(27가계)에서는 독일산이 가장 우수한 수고 및 흉고생장을 보였으나 비교목인 전나무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일본전나무 보다는 낮았다.

I. 연구배경 및 목적

외국 수종의 도입은 임목개량 방법의 하나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그 나라의 향토수종을 대체하여 보급할 만큼 개량효과를 거두고 있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는 미국원산인 radiata pine을 도입하여 자국의 주요 조림수종으로 목재생산 증대를 가져 오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알제틴, 브라질 등지에서도 미국 원산인 slash pine의 도입에 성공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한해에 35만 ha를 조림하였다. 미국 동북부 원산인 스트로브잣나무는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미국 원산인 douglas-fir는 영국, 알제틴, 뉴질랜드, 독일등지에서 도입에 성공하였으며 이 밖에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생산성이 낮은 임분을 대상으로 외국수종을 도입 대체 조림함으로서 목재 생산증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 밖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도입육종은 외국수종 중 생장과 특성이 우수한 수종(품종)을 도입하여 적응성 검정을 통하여 단기간에 큰 육종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 수종 중 주요 유망 수종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응하여 생장과 형질이 우수한 새로운 수종(품종) 및 산지를 육성 보급함에 있다.